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2000, Vol 13, No 3. 21-42

N세대의 친사회도덕 발달: 관련변인의 탐색 및 증진 방안의 모색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친사회행동을 수행하려면,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타인에게 초점을 둔 공감 및 자신의 부적 감정의 조절 등 다양한 측면의 자질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통해 사이버공간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진 청소년들(N세대)이 사이버공간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중요한 사회행동의 하나인 친사회도덕과 어떤 연계성을 지닐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친사회행동과 관련된 변인들로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고방식과 친사회적 인지간의 관련성,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서표현과 친사회적 정서로서의 공감간의 관련성,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관계 양상과 현실공간에서의 타인에 대한 관심간의 관련성,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동성과 친사회행동의 촉진자로서 자기감정조절 간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N세대의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화과정의 방안으로서 친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주는 것, 친사회행동 모델을 보여주는 것, 타인지향적 공감유도적 훈육을 사용하는 것, 친사회행동에 대해 내재적 강화를 시키는 것, 자신의 부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친사회행동의 연습장으로서 학교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유용성과 편리함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은 이제 개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었고,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하는 사람의 수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1].

* yschong@hyowon.cc.pusan.ac.kr

1) 미국의 컴퓨터산업 통계자료업체 CIA(Computer Industry Almanac)에 따르면, 1990-1999연말까지 50개국의 인터넷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1999연말 현재 한국은 유저수가 5,688,000 명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선일보, 2000. 4. 24일자).

사람의 행동과 심리적 반응은 맥락이나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이 인간의 새로운 환경으로 등장하면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양자를 생활환경으로 접하게 된 우리들에게 심리학자들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느냐, 즉 가상공간에서는 현실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이 문제는 황상민.한규석(1999)을 참조). 둘째는 현실의 어떤 요소들이 가상공간에 몰입하도록 만드는가, 즉 현실에서 접하는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상공간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이다. 셋째는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적 심리적 특징들이 현실공간에 어떻게 반영되고 전이되는가 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가상공간에서 나타나는(또는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의 사회행동(여기서는 친사회도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관련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적 활동이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도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등 사회적 교류를 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통한 사회적 활동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과는 차이가 있다(황상민.한규석, 1999). 사이버공간에서는 서로를 드러내지 않고(익명성) 분절된 모습(복합적 정체성)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타인의 의도나 생각, 감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에 반하여, 실제 삶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필요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우리는 가능한 여러 사회적 단서(외모, 얼굴표정, 목소리, 등)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타인의 의도나 동기,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 추론하려고 애쓰게 되는데(Flavell, Miller, & Miller, 1993), 이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이 현실공간에서의 개인의 행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고 어려서부터 사이버공간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진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2] 현시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행동특성과 이런 특성들에 근거하여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간의 연계성을 탐색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본 고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과 WWW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자라난(또는 그러한 환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N세대의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들과 현실의 삶에서 중요한 사회행동의 하나인 친사회도덕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이들의 친사회도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려고 한다.

청소년의 삶에서 가상공간의 역할

여기서는 가상공간이 청소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촉진적 측면과 가상공간의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 성숙과 함께, 지적, 도덕적 성숙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나아가는 시기이다(Erikson, 1968). 따라서 자기 나름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터넷 문화는 이 점에서 청소년들이

2) Tapscott(1998)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77년 이후 출생자를 이런 세대로 간주하여 N세대(Net Generation)로 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이후에 출생한 연령층을 잡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개념을 만들어, 낮과 밤의 구분도 사라지고 개인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개인은 필요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기주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황상민. 한규석, 1999; Tapscott, 1998).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과 현실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하겠지만(송원영, 1998), 가상공간에서 필요한 정보를 개인이 능동적으로 탐색, 선택, 획득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의 독립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의 경우, 개인(특히 N세대에 해당되는 청소년이하의 연령층)은 부모나 사회가 구성해놓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성된 환경에 따르는 수동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독립성 욕구는 기성세대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또래와의 접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가상공간에서 개인은 세계 모든 곳의 사람과 접촉하여 인종, 연령, 성별, 학력 차별없이 모든 이와 평등한 친구관계를 구성하고(Tapscott, 1998), 그들 나름의 학습, 놀이, 대화 등을 위한 가상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 가상공동체는 그들에게 감성적 동질감과 소속감,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감을 해소시키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상민.한규석, 1999).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상대방이 지닌 연령, 지식, 경제력, 힘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관계에 근거한 기존 현실사회에서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 관습, 태도, 공유가치 및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실험을 하는 시기이다. 이 점에서 가상공간은 개인에게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연습장이 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 역할(운동선수 또는 학생, 또는 음악가 등)을 수행해 볼 수 있고, 주제가 다른 여러 유형의 대화방에 서로 다른 인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에 다중인격체의 구성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상황에서는 한 개인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점과 개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불일치하는 행동과 행동, 사고와 행동, 감정과 행동을 서로 일치시키려는 엄청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데, 자아정체감의 문제가 바로 좋은 예이다(Erikson, 1968).

독립된 인격체로 홀로 서려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성인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사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가상공간이 지닌 익명성은 이러한 자유를 허용해준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함으로서 자유자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무슨 얘길 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제재가 되는 분야에서도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작용으로 인터넷중독이 초래될 수 있다(King, 1996).

이제 청소년의 현실적 삶에서 주어진 대인관계 영역의 제약들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의 경험이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인간관계는 대부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부모-자녀, 친구, 연인, 스승-제자 등). 그리고

현실에서는 타인과 부분적 기능으로 교제하기보다는 통합된 개인으로 서로를 대한다. 시간과 상황에 걸쳐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안정된 틀 속에서 서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규칙이나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으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교제(대인관계의 분절화; 황상민.한규석, 1999)가 일어나고, 교류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규칙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경험은 도덕성과 가치관과 같은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규칙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이(정보습득, 대화, 등)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주도하는 활동들이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근거한 자기지향적 판단과 행동을 하기 십상이다. 이에 반하여 현실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려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지에 대한 예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인지향적 관심을 요한다. 그런데 자기지향적 관심과 타인지향적 관심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 방향의 관심으로, 개인의 관심이 자기지향적이 되면 될수록 타인지향적 관심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Eisenberg, Schaller, Fabes, Bustamante, Mathy, Shell, & Rhodes, 1988). 따라서 가상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타인의 필요를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사회도덕과 관련하여 논의해봄직한 또다른 측면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 나타나는 욕구충족의 시차를 들 수 있다. 현실에서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타인간의 욕구 충족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예; 리포트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느냐). 이런 경우 타인과 조화롭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욕구만족을 지연해야 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상공간에서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나 지식, 또는 즐거움을 즉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쉽게 즉각적으로 욕구충족을 받은 청소년들이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거나 충동을 억제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윤재희, 1999).

가상공간에서의 행동특성과 친사회 도덕변인들간의 관계 탐색

사람들은 가상공간이든 현실공간이든 끊임없이 집단에 가입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타인들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고 우호적이며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한다(Forsyth, 1983). 타인과의 우호적이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합의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곤경에 처한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도덕성의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덕성은 공격성의 억제나 정직성 또는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이 사회나 제도가 금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억제지향적 금지성 도덕과(Piaget, 1932; Kohlberg, 1969), 타인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도록 격려하는 친사회적 도덕으로 구분될 수 있다(Staub, 1978; Eisenberg, 1986, 1992). 억제지향적 도덕에서 개인이 접하는 갈등이 규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예; 하인쯔이야기에서 약을 훔칠 것인가 말 것인가?)라면, 친사회적 도덕에서 개인이 접한 갈등은 자신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예; 다친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인지 아니면 연인이 기다리는 데이트 장소에 빨리 갈 것인지 등)이다. 친사회도덕처럼 대인간 갈등은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개인의 행동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예를

들어,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빨리 데이트 장소에 나가는 것은 동시에 수행될 수 없고, 그 어느 하나를 미룰 수도 없기에 개인에게 도덕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친 사람을 도와준 후 언제라도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데이트를 한 후에 다시 다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짓말의 사용 목적에 따라 거짓말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 김경희(1999, 2000)의 연구에서도, 자신을 위한 거짓말(시험성적 속이기)과 타인을 배려하는 거짓말(상대방의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 거짓말)의 반응이 달랐다.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한 주인공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주로 거짓말은 나쁘다(구체적 정직), 또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 거짓말은 나쁘다(사회적 정직)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타인을 배려하여 거짓말을 한 주인공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중,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친절의 표시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개념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위의 예에서는 시험성적 속이기)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대인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타인에 대한 배려(위의 예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것)에 근거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을 아동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친사회행동은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자발적 행위이다(Eisenberg & Fabes, 1998). 친사회행동을 하려면, 타인에 대한 관심(사교성),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조망수용능력) 및 타인에 초점을 둔 정서(공감) 등 다양한 측면의 자질들이 요구된다. 특히 타인을 이롭게 하려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도덕성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이를 흔히 이타성(altruism)이라고 칭함),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란 구체적 보상이나 타인의 인정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의 필요에 대한 인식, 내재적 가치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이다(Eisenberg & Mussen, 1989).

사이버공간에서의 경험과 친사회도덕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여기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고방식과 친사회적 인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서표현과 친사회적 정서로서의 공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관계 양상과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동성과 친사회행동의 촉진자로서 자기감정의 조절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고방식과 친사회적 인지

친사회행동은 상대방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결하는 일종의 의사결정으로, 이 결정 과정에 많은 요인들이 계기적으로 개입된다(Eisenberg, 1986). 이 과정에서 도덕판단은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는 지적 활동이다. 여기서는 여러 학자들이 친사회행동을 촉진시키는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과 도덕추론(Batson, 1991; Eisenberg, 1986; Hoffman, 1982; Staub, 1979)의 기능을 살펴본 후, 가상공간에서의 경험과 친사회인지간의 관련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망수용능력. 조망수용에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의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 타인의 시각적 경험에 대한 조망을 이해하는 능력(지각적 조망수용), 둘째,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정서적 조망수용), 그리고 셋째, 타인의 인지적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인지적 조망수용)이 그것이다.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곤경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돕기에(예; Batson, 1991; Eisenberg,

Shea, Carlo, & Knight, 1991; Feshbach, 1978; Hoffman, 1982),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은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의 불편을 구분할 수 있고 타인의 정서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조망수용능력이 발달된 사람은 타인의 상태를 개선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한 위로(예; 타인의 자존심을 보호해주려는 것)도 할 수 있다(Burleson, 1985).

그러나 조망수용능력이 친사회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망수용능력은 있으나, 행동에 필요한 동기와 기술, 또는 사회적 활동성 등이 부족하여 친사회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지향적이거나 사회적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에게서 조망수용능력은 친사회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arrett & Yarrow, 1977; Denham & Couchoud, 1991), 이런 자질이 부족한 아동들에게서는 조망수용능력과 친사회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화상을 입은 아이를 돕겠다고 돈을 기부한 아동들은 조망수용능력이 높았을 뿐 아니라 공감도 잘하는 아이들이었다(Knight, Johnson, Carlo, & Eisenberg, 1994).

도덕추론(친사회도덕 추론). 도덕발달의 인지적 접근에서 취하는 기본 입장(Piaget, 1932; Kohlberg, 1969, 1981)은 도덕발달이란 도덕 추론의 발달을 의미하며, 도덕추론의 발달은 인지 발달 수준과 연계되어 있어 불변의 일정한 위계적 순서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판단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질적으로 높고 일관성있는 도덕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친사회도덕 판단을 연구하게 된 Eisenberg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Eisenberg는 친사회도덕 판단의 단계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위계적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였다(Eisenberg, 1986). 그녀는 환경과 정서적 요인들이 친사회도덕 추론과 그 발달에 미치는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지발달적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Eisenberg는 규칙, 권위, 처벌, 의무 등이 약하지만 타인의 필요와 개인 욕구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친사회적 도덕적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다양한 친사회도덕 판단의 기본 범주(예; 자기본위적 쾌락 추구, 타인의 필요에 대한 배려, 타인의 인정 추구, 공감지향 등)를 발견하였다(Eisenberg, Lennon, & Roth, 1983; Eisenberg-Berg & Hand, 1979; Eisenberg-Berg & Neal, 1979).

친사회도덕 판단과 행동간의 관계를 보면, 자기쾌락 추구적 추론(자기지향적 추론)은 친사회행동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타인의 필요 중심적인 추론(타인지향적 추론)은 친사회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Eisenberg, Carlo, et al., 1995; Eisenberg & Shell, 1986; Eisenberg-Berg & Hand, 1979; Eisenberg, Miller, Shell, McNalley, & Shea, 1991). 또한 자발적 친사회행동일수록 내재적 또는 이타적 이유로 실행되기 쉽다(Eisenberg, Fabes, Miller, Shell, et al., 1990). 그리고 부담이 큰 친사회행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도덕추론 수준이 중요하다. 부담은 인지적 갈등과 도덕적 의사결정을 유발하기에(Eisenberg & Shell, 1986),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높고 타인의 필요지향적인 추론을 할 때 자신에게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된다(Miller et al., 1996).

친사회도덕 판단은 또한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사회인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양육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Fuch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Fuchs, Eisenberg, Hertz-Lazarowitz, & Sharabany, 1986)에서 타인을 돕는 이유에 대한 아동들의 답변을 분류한 결과, 미국 아동들이 이스라엘 아동들에 비해 타인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추론을 많이 한 반면에, 이스라엘 키부츠 아동들은 인본주의와 내면화된 규범에 근거한 판단이 많았다. 즉, 미국 아동들은 단순히 타인의 필요에만 관심을 쏟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자란 아동

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한 인간"이라는 점과 타인을 돕는 것이 내면화된 규범이라는 점을 들어 타인을 돕는 이유를 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구적 문화에서 행해진 또다른 연구로서 덜 문명화된 전통적 사회의 하나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수행된 Tietjen(1985)의 연구가 있다. Eisenberg의 친사회 도덕 판단 과제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하여 아동들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실시한 결과, 파푸아 뉴기니아 아동들은 청소년과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보다는 타인의 물리적 필요에 근거한 판단을 많이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본위적 판단이 많았다. 어린 아동들이 물리적 필요와 자기본위적 판단이 많다는 것은 미국 아동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서도 이러한 반응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아마도 사람들이 서로 알고 생존하기 위해 서로 협동해야 하는 조그만 사회에서는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연령 또는 시대에 따라 타인을 돕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으나,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친사회행동을 하려면 타인의 물질적, 심리적 필요를 중요시하고,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한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과연 상대방을 배려하는 규칙의 필요성과 그러한 규칙의 근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없다. 앞으로 실생활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친사회행동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친사회행동과 실생활에서 친사회행동을 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N세대는 정보의 입력과 출력이 기존세대와 크게 다르다. N세대는 정보의 입력과 출력의 순서에 크게 구속받지 않는 비계기적 방식을 취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사회행동은 일시적 기분에 의한 즉흥적 행동이라기 보다는 많은 요소들 특히,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하는 시간을 요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즉흥적 필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오랜 경험이 체계적 사고와 시간적 조망을 요구하는 친사회행동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서표현과 친사회적 정서로서의 공감

많은 심리학자들(Batson, 1991; Eisenberg, 1986; Feshbach, 1978; Hoffman 1982; Staub, 1979)은 친사회행동(특히 이타성)은 공감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정서상태나 조건을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생기는 정서반응으로, 타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생긴 불편한 상태를 지칭하는 심리적 불편감(personal distress)과는 구분되는 상태이다(Batson, 1991; Eisenberg, Shea, Carlo, & Knight, 1991). 공감은 상황적으로 유발될 수도 있고(Batson, 1991; Eisenberg & Fabes et al., 1990), 성향적 특성으로(Eisenberg & Miller, 1987; Staub, 1979)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경험적 연구에서는 공감과 친사회행동 간의 관계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감을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ata-analysis를 통해 나타난 바는, 언어적 보고나 그림이나 이야기를 통한 가상적 주인공에 대한 공감 정도와 친사회행동과는 관련이 적으나, 비언어적 공감반응이나 청소년의 자기보고에서는 공감정도와 친사회행동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을 재는 방식에 따라 공감과 친사회행동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결과는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데 관련되는 진정한 공감이 존재하는지, 존재

한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Batson(1991)은 타인지향적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감이야말로 이타행동을 이끄는 핵심적 요인이고, 심리적 불편감(personal distress)을 해소하려고 타인을 돕는 것은 이기적 동기에 의한 도움으로 간주하는 대표적 연구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만이 자신의 불편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안이 될 때에만 친사회행동을 실행하게 된다. Batson의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Eisenberg와 그 동료들은 타인에 초점을 둔 공감상태와 자신의 심리적 불편에 초점을 둔 상태가 서로 구분되는 상태임을 지지하는 생리적 지표와, 이러한 상이한 상태와 친사회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Eisenberg, Fabes 및 그 동료들은 아동들과 성인들이 공감을 유발하는 자극을 볼 때에는 심장박동이 감소하고 피부전기반사가 크지 않으나, 심리적 불편감을 주는 자극을 볼 때에는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피부전기반사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Eisenberg & Fabes, et al., 1991; Eisenberg, Fabes, Carlo, et al., 1992; Eisenberg, Schaller, et al., 1988). 이어 Eisenberg, Fabes 및 그 동료들의 연구에서 공감을 유발하는 자극을 본 아동들 중에서 필름을 보는 동안 얼굴표정과 생리적 지표 상에서 공감지표(심장박동 감소, 약한 피부전기반사)를 보인 아동들은 타인을 잘 도우나, 공감유발 자극을 보는 동안 얼굴표정과 생리적 지표 상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보인 아동들은 타인을 잘 돕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Fabes, Carlo, et al., 1993; Eisenberg, Fabes, Miller, Shell, et al., 1990; Eisenberg, Fabes, Miller, et al., 1989; Fabes, Eisenberg, & Miller, 1990; Miller et al., 1996; Zahn-Waxler et al., 1995).

Eisenberg등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감은 지나치지 않은 그러나 상대방을 염려하는 적절한 수준의 생리적 반응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서는 비언어적 반응이나 얼굴표정 등에 관한 정보없이 추상적인 상징과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공감이 일어나려면 상대방의 불편한 상태에 주목하고 그 상태를 추론할 필요를 느껴야한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서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얼굴표정, 음성, 몸짓, 음성의 떨림, 높낮이 등 비언어적 단서가 전달될 수 없으므로,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느낌을 주고받기가 어려워 상대방의 내적 상태에 대한 추론을 할 필요가 없거나 어려워진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보다는 메시지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내용과 그 내용을 전한 사람을 분리시켜 상대방에 대한 정서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실제적 사회단서의 상실은 사회적 영향을 약화시켜(Kiesler, Siegel, & McGuire, 1984), 공감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면적 교류에 비해 사회적 실재감(의사소통 당사자들이 소통 중에 상대방의 존재에 대하여 느끼는 실재감)이 떨어진다. 실재감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사무적이 되며, 개인적 관심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 화상채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이 발달될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체를 통한 교류임에는 변함이 없다. 얼굴표정과 비언어적 단서가 공감을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이라면 이런 단서가 보완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단서의 부재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만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하다면 사회적 단서를 보완하는 것만으로 공감을 유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양상과 현실 공간에서의 타인에 대한 관심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와 현실교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제안될 수 있다. 한 입

장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가 현실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활동(가입한 단체, 하루평균 대화상대의 수, 여론선도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고 현실 친구들간의 친밀도가 높다는 결과(김선업, 1997; 이현우, 1998),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나 우울한 사람들에겐 사이버공간이 사회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결과(Parks & Floyd, 1996)는 이 입장을 지지해주는 자료들이다.

이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가 현실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Kraut, Lundmark, Patterson, Kie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 2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회적 참여도(가족간 의사소통 시간, 1달 이내에 한번 이상 접촉하는 근거리 사람의 수, 1년 이내에 한번 이상 접촉하는 원거리에 사는 사람의 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상태(고독, 우울, 스트레스 등), 인터넷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참가자들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가족간 의사소통 시간이 줄고, 접촉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우울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현실 대인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사이버교류를 통한 대인관계를 모색한다는 사실도(배진한, 1995) 이 입장을 지지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도우려면 관계형성이나 도움에 앞서 상대방을 감정과 생각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가 현실에서의 타인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익명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외모, 이름, 나이, 신분, 성별, 학력 등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이 모르게 하거나 변조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개인은 자신에게 부담이 큰 행위들은 회피하거나 거부하기가 용이하며, 동시에 특정 행위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부담도 적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적다. 이에 반하여, 현실에서는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도우려면 자신의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입하는 자기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부담도 크고,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돌아올 비난이나 자책 역시 큰 부담이 되기에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우호적이고 협동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인간관계의 의미가 달라지는 현실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또다른 관심거리이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부모-자녀, 부부, 형제, 친구, 연인, 스승-제자, 상사-부하,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중요한 타인은 개인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Klinger, 1977), 이들은 개인에게 나름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도울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친사회행동이 달라진다(Eisenberg & Pasternack, 1983). 아동들은 개인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타인일 때(예:어머니), 그 상대방을 위해 더 자발적으로 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한다(정영숙, 1994). 그리고 도움의 수혜자가 좋아하거나 친밀한 사람일수록 어린 아동들도 더 잘 돕는다(정영숙, 1999; Birch & Billman, 1986; Buhrmester, Goldfarb, & Cantrell, 1992; Staub & Sherk, 1970).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동성과 친사회행동의 촉진자로서 자기감정 조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에 대한 억제가 풀리는 탈억제 현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상태가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공격적 행위

가 증가하는 것: Kiesler, Siegal, & McGuire, 1984), 자신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즉시라도 대화방을 떠날 수 있는 등의 자기주도적 편이성과 욕구만족을 지연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Tapscott, 1998).

최근 인터넷에 몰입한 사람들(연구대상자의 약 4%)과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몰입되지 않은 사람들(연구대상자의 약 52%), 그리고 인터넷 비사용자를 비교한 연구에서(윤재희, 1999)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불편감, 감각추구성향, 인지적 충동성 등에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충동성에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인터넷에 몰입된 사람들이 몰입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충동적인(운동충동성(예; 앞 뒤 생각없이 행동한다)과 무계획충동성(예;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영역별 비교에서는, 대화실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E-mail이나 자료실을 활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영 (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은 나이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가상공간에서 활동을 한 후에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현실로 돌아와 현실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가상공간 속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하므로 계속 가상공간에 집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현실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사회적 기능을 하기 어렵다. 특히, 자신의 부적 감정(예; 분노)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적대적인 공격행동의 표출은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최근 친사회행동이나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적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Eisenberg, Guthrie, Fabes, Reiser, Murphy, Holgren, Maszk, & Losoya, 1997). 자기조절은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과 행동조절(behavioral regulation)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친사회행동을 포함한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하려면 특히 정서조절이 중요하다(Eisenberg, Guthrie, et al., 1997).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내적 상태나 감정의 발생을 부추키고, 그 강도와 지속시간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다. 타인의 불편을 보고 개인에게 발생한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 친사회행동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로 간주되면서(Eisenberg, Fabes, Carlo, et al., 1993; Eisenberg, Fabes, Miller, Shell, et al., 1990),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 감정의 조절은 계속 친사회행동의 주요 연구 주제로 부각될 것이다.

N세대의 친사회행동 증진을 위한 사회화과정에 대한 제언

친사회행동 증진을 위해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은 N세대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라기 보다는 친사회도덕을 증진시키는 일반적 요인들에 비추어 이들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1) N세대에게 친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주는 것, 2) N세대에게 친사회행동 모델을 보여주는 것, 3) 타인지향적 공감유도적 훈계를 사용하는 것, 4) 친사회행동에 대한 내재적 강화, 5) 자신의 부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6) 친사회행동의 연습장으로서 학교의 활용을 제안할 것이다.

친사회적 가치의 강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라는 인식과 가치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한다(Baumeister, 1991). 친사회적 가치란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을 동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다. N세대가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는 소비지향적이며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Tapscott, 1998). 특히 물질에 대해 소비.소유의 가치를 높게 인식(획득 그 자체에 대한 의미부여)하는 반면에, 물질의 행복가치(예: 돈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다(이은희.김성숙, 2000). 따라서 물질을 중요시하는 N세대들에게 물질을 나눔으로써 얻는 행복과 기쁨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친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는 부모가 친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느냐가 중요하다. Freud (1933/1968)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의하면, 아동들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성적 충동과 파괴적 충동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다가 4-6세 사이에 자신의 충동과 부모의 제재 또는 부모의 애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부모와의 동일시 결과로 초자아가 형성된다. 따라서 부모가 친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는 아동이 친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부모가 친사회적 가치를 견지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친사회행동으로부터 친사회적 가치 또는 기준과 같은 추상적 모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Bandura, 1986).

부모가 보고한 친사회적 가치와 관찰된 아동의 친사회행동간에 긍정적 관계가 보고되고 있는데 (Eisenberg, Wolchik, et al, 1992; Hoffman, 1975), 보다 의미있는 자료는 나치 박해로부터 유태인을 도와준 사람들을 면접한 결과에서 나오고 있다. 유태인을 도와준 사람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Oliner & Oliner, 1988). 흥미로운 것은 유태인을 도와준 사람이나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정직이나 평등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타인의 안녕과 고통을 배려하고 위하는 친사회적 가치는 가족과 같이 중요한 타인의 실제적 삶에서 습득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타인의 필요와 불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부모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여 타인을 돕는 친사회적 가치가 가치있고 중요한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친사회행동 모델의 제공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이타적 모델을 볼수록 이타행동은 증가하게 된다. 실험실 연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자신이 얻은 선물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남을 돕는 모델을 본 아이들은 남을 돕는 기회가 없었던 모델을 본 아동들보다 더 많이 기부하였다(Rice & Grusec, 1975; White & Burnam, 1975). 특히 모델이 친사회행동 후에 행복감을 나타내는 말(예; "마음이 흐뭇해" 등)을 하면 아동들이 더 관대하게 반응하는데(Bryan, 1971; Rushton, 1975), 이는 대리적 내적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활에서 모델링의 효과를 보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부모가 아주 이타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하여 활동에 조금 참여하다가 힘들어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친사회적 가치를 가르치기는 했으나 자주 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Rosenhan, 1970). Clary와 Miller(1986)의 연구에서도 위기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부모

가 지지적이고 이타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들과 토대로 친사회행동과 관련된 모델링 효과에서 논의되어야 할 점은 자녀들의 친사회행동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부모의 친사회행동에서 아동들은 부모가 얼마나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친사회적 행동을 일관성있게 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하고, 타인을 도운 후에 오는 기쁨이나 보람 등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들의 타인중심적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지향적 공감유도 훈계의 사용

사회화과정에서 유도식훈계(induction)란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법이다. 유도식 훈련은 아동에게 적절한 각성을 유발하고, 부모의 임의적 반응 또는 심리적 저항을 덜 일으키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결말에 대해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시간이 경과해도 행동과 결과간의 인과적 연계를 계속 기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사회행동을 함양하는 좋은 훈육 방법이 된다.

유도식 훈련과 친사회행동은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고(Bar-Tal, Nadler, & Blechman, 1980; Dlugokinski, & Firestone, 1974; Feshbach, 1978; Oliner & Oliner, 1988), 또래나 타인의 감정에 주목하도록 한 훈련과 친사회행동 또는 공감간에도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Stanhope, Bell, & Parker-Cohen, 1987). 그러나 분노가 관련된 유도기법, 특히 죄책감을 유도하는 훈련은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행동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Renwick-DeBardi, & Hewes, 1994).

유도훈련을 할 때 어떤 정서 톤으로 하는가도 중요하다(민주적 방식으로 또는 비처벌적 방식으로). 아동들은 힘에 의해 유도된 친사회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사회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인시키기에(Dix & Grusec, 1983; Smith, Gelfand, Hartmann, & Partlow, 1979), 처벌의 효과가 사라지면 소거된다. 규범적 훈계(예; 남을 돕는 좋은 것이다) 역시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규범적 훈계는 돕기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거나 훈계자가 아동에게 영향력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도움행동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Eisenberg-Berg & Geisheker, 1979), 도움행동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성인이나 수혜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낼 것이라는 내용은 공감보다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McGrath & Power, 1990).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를 도움으로써 생기는 정서적 결말을 강조하는 공감유도식 훈계는 이기적 훈계보다(Dressel & Midlarsky, 1978), 위협적 훈계보다(Perry, Bussey, & Freiberg, 1981)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기부를 더 많이 유도하였다. 따라서 친사회행동에 대한 훈계는 아동이 자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훈계의 내용이 타인지향적이고, 도움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특히, 수혜자의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그 효과가 최대화된다. 앞으로 유도식 훈계에 대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수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관련변인들(메시지의 내용, 메시지에 내포된 규칙, 메시지에 있는 의도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친사회행동에 대한 내재적 강화

학습이론이 예견하듯이, 물질적 강화(Fischer, 1963)나 사회적 강화(Bryan, Redfield, & Mader, 1971; Eisenberg, Fabes, Carlo, Speer, et al., 1993; Grusec & Redler, 1980)는 적어도 즉각적으로는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사회행동에 대한 칭찬과 같은 사회적 강화가 즉각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Mills & Grusec, 1989).

친사회행동에 대한 물질적 강화는 즉각적 효과

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Lepper(1983)의 물질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깎아 내린다는 내재적 동기 개념의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Szynal-Brown과 Morgan(1983)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3학년 아동들은 가르치는 대가로 상을 약속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자유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다른 연구에서도 (Fabes, Fultz, Eisenberg, May-Plumlee, & Christopher, 1989), 친사회행동에 대해 물질적 상을 주는 것이 자유선택 상황에서 익명의 친사회행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아동의 친사회행동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주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경우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물질적 보상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에 비해 물질적 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덜 친사회적이었다. 이 결과는 물질적 보상을 자주 받은 아동들에게서 물질적 보상이 친사회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보상이 아동에게 부각되어 자신의 친사회행동을 외적 보상 탓으로 돌렸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칭찬은 칭찬유형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아동의 친사회행동을 친절한 성향 또는 내적 동기로 돌리는 칭찬은(예; "너는 언제나 남을 잘 돕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 "너는 아주 착하고 남을 잘 돕는 사람이구나") 단순히 그 행동을 좋은 행위라고 명명하는 것보다(Grusec & Redler, 1980; Mills & Grusec, 1989), 또는 친사회행동에 대한 귀인이 없는 경우보다 (Grusec & Redler, 1980; Holte, Jamruszka, Gustafson, Beaman, & Camp, 1984)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사회행동에 대한 내적 귀인은 친사회적 자기이미지를 형성하여, 그 결과로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친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좋은 한 가지 방안은 실행하기가 용이한 친사회 행동부터 조금씩 조금씩 실행하게 하는 것인데, 이 방안은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문에 발들여 놓기(the foot-in-the door effect)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이것은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한 것이 자신이 친사회적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남을 돕는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친사회행동의 실행은 친사회행동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행동을 실행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키려면 어려서부터 친사회활동에 참여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동들을 집안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나(Rehberg & Richman, 1989; Whiting & Whiting, 1973), 청소년들을 지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인을 돕는 경향성을 높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Yates & Youniss, 1996).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입시 평가에서 재학 시절의 봉사활동을 점수화하는데, 청소년들의 봉사를 점수와 연계시키는 것은 봉사가 지닌 내재적 가치(보람, 기쁨 등)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봉사가 보다 자발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적 감정의 조절 훈련

자신의 내부에 발생한 분노나 충동 또는 슬픔을 조절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 되고 타인을 위한 유용한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원할한 사회적 기능의 주요한 매개요인이 된다. 부적 감정과 친사회행동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갈등과 분노가 지나치게 커지면 개인은 우선 자신의 부적 감정을 최소화시키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타인지향적인 친사회행동이나 공감 능력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Eisenberg et al., 1994). 친사회행동이 분노, 공포, 불안, 슬픔 등과 부적 관계를 보이고, 정적 정서와

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결과(Denham, 1986; Eisenberg, Fabes, Karbon, Murphy, Wosinski, et al., 1996), 친사회적 아동들이 자기조절을 잘하고 충동적이지 않다는 결과(Eisenberg & Mussen, 1989), 공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자기규제를 잘 한다는 결과(Eisenberg & Fabes, 1995; Eisenberg, Fabes, Karbon, Murphy, et al., 1994), 부적 정서와 공감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결과(Eisenberg, Fabes, Karbon, et al., 1996), 그리고 부정적 정서수준이 낮을수록 상황에 대한 배려가 높다는 결과(Eisenberg & Fabes, 1995) 등은 친사회행동과 공감이 부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지지해줌으로써 친사회행동의 실행에서 부적 감정의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면 지나치게 각성되어 자기중심적 불편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은(Eisenberg, Fabes, Karbon, Murphy, et al., 1994) 자녀의 부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이 공감과 친사회행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Eisenberg, Fabes, Carlo, Troyer, et al., 1992; Eisenberg, Fabes, Schaller, Carlo, & Miller, 1991).

친사회행동의 연습장으로서 학교의 활용

도덕발달에서 또래의 역할을 강조해 온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처럼(Piaget, 1932; Sullivan, 1953; Youniss, 1980), 또래 상호작용에는 평등, 협동, 상호교호성, 상호성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래 상호작용은 공평, 친절,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개념과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Youniss, 1980).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공감의 발달, 특히 부모이외의 타인들을 향한 친사회적 반응과 공감 발달에 중요하다(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 아동들이 또래에게 하는 친사회행동과 성인에게 하는 친사회행동이 다르고, 친사회행동을 하는 이유도 달랐다. 아동들이 또래에게 하는 친절한 행위로는 나눠주기, 같이 놀기, 물질적 도움,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인 반면에, 어른들에게 하는 친절한 행위로는 예의바르고, 일을 잘하고, 복종하는 것이었다(Youniss, 1980). 그리고 아동들은 권위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른들의 부탁을 들어준 반면에, 또래에게는 상대방의 필요나 관계지향적인 이유를 (친구니까, 좋아하니까) 들었다(Eisenberg, Lundy, Shell, & Roth, 1985). 이것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타인지향적 관심에 의해 동기화된 친사회행동 발달을 촉진시키는 맥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또래는(특히, 친밀하고 좋아하는) 친사회행동 발달의 유용한 모델이 된다(Damon, 1977). 아동은 또래와 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행동을 함께 시도해볼 수 있고, 또래로부터 오는 강화를 통해 행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또래는 또래가 하는 친사회행동을 강화시킴으로써(칭찬해주고, 미소짓고, 고마워하고) 친사회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Eisenberg, Cameron, Tryon, & Dodez, 1981).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학교 프로그램의 역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또래와 어울리는 주된 장소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서로 돕고,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유용한 연습장이 된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 학급 내에서 또래들 간에 친사회행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어떤 유형이 일어나는지 등에 관한 자료는 청소년기의 친사회도덕의 실상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살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곽금주, 2000), 아직 한국에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실에서의 친사회행동의 발생은 미국에서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Hertz-Lazarowitz, 1983; Hertz-Lazarowitz et al., 1989), 이것은 전통적

인 교실상황은 친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Solomon과 그의 동료들은 친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사회화시키는 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학생들과 긍정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도식 훈련과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학생 참여를 강조하는 교실을 운영하는 학생중심적 접근을 사용하도록 훈련하여 친사회행동을 증진시켰다(Solomon, Watson, Delucchi, Schaps, & Battistich, 1988). 그리고 교실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예; mixed age교실)도 친사회행동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후 6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길러진 문제원숭이를 위한 좋은 치료는 자기보다 더 어린 원숭이와 함께 지내게 하여 자발적으로 어린 원숭이를 돌보도록 만드는 것이었음을(Suomi, Harlow, & Mckinney, 1972; Novak & Harlow, 1975)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결 언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환경으로 등장한 이후,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통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한 세대가 청소년 세대로 성장하게 되었다(Tapscott, 1998). N세대로 불리우는 이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공간은 이들에게 더욱 더 친숙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에 못지 않게, 때로는 오히려 현실공간보다 더 친숙한 환경이 되어 가고 개인이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로 가상공간과의 잦은 접촉이 현실과의 접촉을 감소시키면서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영역, 특히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친사회행동에서 어떤 결함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섞인 질문이 생기게 된다. 물론 사이버공간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현실과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현실과의 접촉 감소가 과연 사람들과의(부모, 자녀, 친구, 이웃사람 등) 실제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에 보고된 한 연구에 의하면, 2년 동안 행해진 종단적 추적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Kraut, Lundmark, Patterson, Kie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 그러나 사회적 접촉의 감소가 실제 대인관계에서 어떤 결함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경험이 현실세계로의 전이 또는 촉진 및 방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일상생활사 표집을 통한 기초 자료 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공간에 자주 접하는 N세대들이 현실공간에서 보여주는 사회행동에 관한 경험적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가상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특징을 토대로 이러한 특징들이 친사회도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잠정적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은 N세대의 친사회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익명성과 개인주도성 그리고 분절된 역할에 의한 상호작용은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거나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는 친사회인지를 약화시키고, 부담이 큰 도움행위를 쉽게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타인을 도울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해보았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상호작용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상대방의 존재에 느끼는 실재감)이 떨어짐으로 인해 타인의 고통과 필요에 공감하는 정도를 약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또한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에 대한 억제가 풀리고 욕구충족에 대한 절제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속적인 경험은 자신의 부적 감정의 조절이 특히 중요한 친

사회행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도 조심스럽게 지적해보았다.

우리는 점점 더 가상공간에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가상공간에서의 경험은 앞서 보았듯이 여러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곤경에 처한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고 돕는 것 역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중요한 사회행동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회화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친사회적가치를 강조해주고, 친사회행동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타인의 필요나 처지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아동이 행한 친사회행동에 대해 물질적 강화나 칭찬보다는 친사회행동 자체가 갖는 의미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부적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에 주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가상공간에서 오래 지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서로의 필요나 곤경에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친사회행동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이타성의 요소를 음미함으로써 본 고를 끝내기로 하겠다.

> 우리는 어쩌다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할 수 없이 도와준 경우나 의무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고마움이란 혜택을 주는 사람의 의지, 즉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Heider, 1958, P. 265).

위 인용문에 나타난 내용은 사람들은 자신으로 향한 상대방의 이타성을 인식할 때, 상대방에게 고마움(gratitude)을 느낀다는 것이다. 타인의 행위를 이타적인 것으로 귀인할 때 고마움을 느낀다는 주장에는 이타행동이 1) 다른 이득을 기대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고, 2)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3)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이타행동의 정의(Leeds, 1963)가 잘 나타나 있다. 친사회도덕은 단순히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다.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하되, 타인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부담이 큰 행위인 것이다. 친사회행동의 사회화에서 친사회적 의도나 동기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금주(2000). 교실이데아. 2000년 한국발달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김경회(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발달, 12(1), 14-24.

김경회(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1), 81-93.

김선업(1997). 컴퓨터-매개 인간관계의 사회심리, 정보화동향, 4(3), 5-18.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배진한(1995).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윤재희(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이은희.김성숙(2000).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 성향과 관련요인. 21세기 주역 청소년

의 소비문화: 2000년도 한국소비문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발표집. 89-111.

이현우(1998).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엮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영숙(1999). 친밀성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2(2), 106-116.

황상민.한규석(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서울:박영사.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rrett, D. E., & Yarrow, M.(1977). Prosocial behavior, social inferential ability, and assertivenes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475-481.

Bar-Tal, D., Nadler, A., & Blechman, N.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i children's helping behavior and their perception on parents' socialization practic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1,* 159-167.

Batson, C. D.(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answer.* Hilsdale, NJ: Erlbaum.

Baumeister, R. F.(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Birch, L. L., & Billman, J.(1986). Preschool children's food sharing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Child Development, 57,* 387-395.

Bryan, J. H.(1971). Model affect and children's imitative altruism. *Child Development, 42,* 2061-2065.

Bryan, J. H., Redfield, J., & Mader, S.(1971). Words and deeds about altruism and the subsequent reinforcement power of the model. *Child Development, 42,* 2061-2065.

Burleson, B. R.(1985). The production of comforting messages: Social-cognitive foundation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4,* 253-273.

Buhrmester, D., Goldfarb, J., & Cantrell, D. (1992). Self-presentation when sharing with friends and nonfriend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61-79.

Clary, E. G., & Miller, J.(1986). Socialization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ustained altruism. *Child Development, 57,* 1358-1369.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Denham, S. A.(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Denham, S. A., & Couchoud, E. A.(1991). Social-emotional predictors of preschoolers' responses to adult negative emo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595-608.

Denham, S. A., Renwick-DeBardi, S., & Hewes,S.(1994).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ers: Relations with emotion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488-508.

Dix, T., & Grusec, J. E.(1983). Parental influence techniques: An attributio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4,* 645-652.

Dlugokinski, E. L., & Firestone, I. J.(1974). Other centeredness and susceptibility to charitable appeals: Effects of perceived discipline.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1-28.

Dressel, S., & Midlarsky, E.(1978). The Effects of model's exhortations, demands, and practices on children's donation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2,* 211-223.

Eisenberg, N.(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LEA.

Eisenberg, N.(1992). *The caring child.*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Eisenberg, N., Cameron, E., Tryon, K., & Dodez, R.(1981). Socialization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school classroom.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73-782.

Eisenberg, N., Carlo, G., Murphy, B., & Van Court, P.(1995). Prosocial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179-1197.

Eisenberg, N., & Fabes, R. A.(1995). Relation of young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to social competence,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ognition and Emotion, 9,* 203-228.

Eisenberg, N., & Fabes, R.(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3). 5th Ed: NY: Wiley & Sons.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Speer, A. L., Switzer, G., Karbon, M., & Troyer, D.(1993). The relations of empathy related emotions and maternal practices to children's comfort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131-150.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C., Wosinski, M., Polazzi, L., Carlo, G., & Juhnke, C.(1996). The relations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974-992.

Eisenberg, N., Fabes, R. A., Miller, P. A., Fultz, J., Mathy, R. M., Shell, R., & Reno, R. R.(1989). The relations of sympathy and personal distress to prosocial behavior: A multimethod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55-66.

Eisenberg, N., Fabes, R. A., Miller, P. A., Shell, C., Shea, R., & May-Plumlee, T.(1990). Preschooler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their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36,* 507-529.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Maszk, P., Smith, M., O'Boyle, C., & Suh, K.(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empathy-related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776-797.

Eisenberg, N., Fabes, R. A., Schaller, M., Carlo, G., & Miller, P. A.(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Holgren, R., Mazak, P., & Losoya, S.(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2),* 295-311.

Eisenberg, N., Lennon, R., & Roth, K.(1983). Pr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46-855.

Eisenberg, N., Lundy, N., Shell, R., & Roth, K. (1985). Children's justifications for their adult and peer-direct compliant (prosocial and non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 Psychology, 21,* 325-331.

Eisenberg, N., & Miller, P.(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Eisenberg, N., Miller, P. A., Shell, R., McNalley, S., & Shea, C.(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49-857.

Eisenberg, N., & Mussen, P.(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isenberg, N., Pasternack, J.(1983). Inequalitie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Whom do children assist? In R. L. Leahy (Ed.), *Child's construction of inequality* (pp. 179-205). New York: Academic Press.

Eisenberg, N., Schaller, M., Fabes, R. A., Bustamante, D., Mathy, R., Shell, R., & Rhodes, K.(1988). The differentiation of personal distress and sympathy in children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66-775.

Eisenberg, N., Shea, C.L., Carlo, G., & Knight, G.(1991).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cognition: A "chicken and the egg" dilemma.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vol.2). Hillsdale, NJ: Erlbaum.

Eisenberg, N., & Shell, R.(1986). The relation of prosocial moral judgment and behavior in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o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426-433.

Eisenberg, N., Wolchik, S., Goldberg, L., & Engel, I.(1992). Parental values, reinforcement, and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 19-36.

Eisenberg-Berg, N., & Geisheker, E.(1979). Content of preachings and power of the model/preacher: The effect on children's genero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68-175.

Eisenberg-Berg, N., & Hand, M.(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Eisenberg-Berg, N., & Neal, C.(1979). Children's moral reasoning about their spontaneous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228-229.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mpany.

Fabes, R. A., Eisenberg, N., & Miller, P. (1990). Maternal correlates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39-648.

Fabes, R. A., Fultz, J., Eisenberg, N., May-Plumlee, T., & Christopher, F. S. (1989). The Effects of reward on children's prosocial motivation: A socializatio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09-515.

Feshbach, N. D.(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8, pp. 1-47). New York: Academic Press.

Fischer, W. F.(1963). Sharing in preschool children as function of amount and type of reinforcement.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68,* 215-245.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1993).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Forsyth, D. K.(1983).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Moterey, CA: Brooks/Cole.

Freud, S.(1968).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Fuchs, I., Eisenberg, N., Hertz-Lazarowitz, R., & Sharabany, R. (1986). Kibuutz, Israeli city, and American children's moral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Merrill-Palmer Quarterly, 32,* 37-50.

Grusec, J. E., & Redler, E.(1980). Attribution, reinforcement, and altruism: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25-534.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Hertz-Lazarowitz, R.(1983). Prosocial behavior in the classroom.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5,* 319-338.

Hertz-Lazarowitz, R., Fuchs, I., Sharabany, R., & Eisenberg, N.(1989). Students' interactive and non-interactive behaviors in the classroom: A comparison between two types of classrooms in the city and the kibbutz in Israel.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4,* 22-32.

Hoffman, M. L.(1975). Altruistic behavior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937-943.

Hoffman, M. L.(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281-313). New York: Academic Press.

Holte, C. S., Jamruszka, V., Gustafson, J., Beaman, A. L., & Camp, G. C.(1984), Influence of children's positive self-perceptions on donating behavior in naturalistic setting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2,* 145-153.

Kiesler, S., Siegel, J., & Mu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King, S. A.(1996).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s using the internet? http://rdz.stjohna.edu/~storm/iad.html

Klinger, E.(1977). *Meaning and void.* Minneapolis:Univ. of Minnesota Press.

Knight, G. P., Johnson, L. G., Carlo, G., & Eisenberg, N.(1994). A multiplicative model of the dispositional antecedents of a prosocial behavior: Predicting more of the people more of the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78-183.

Kohlberg, L.(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Rand McNally.

Kohlberg, L.(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San Francisco: Harper & Row.

Kraut, R., Lundmark, V., Patterson, M.,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Leeds, A.(1963). Altruism and the norm of giving. *Merrill-Palmer Quarterly, 9,* 229-240.

Lepper, M. R.(1983). Social-control processes and the internalization of social values: An attributional perspective.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ocultural perspective* (pp. 294-33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Grath, M. P., & Power, P. G.(1990). The effects of reasoning and choice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 345-353.

Miller, P. A., Eisenberg, N., Fabes, R. A., & Shell, R.(1996). Relations of moral reasoning and vicarious emotion to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oward peers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10-219.

Mills, R. S. L., & Grusec, J.(1989).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praising altruism. *Merrill-Palmer Quarterly, 35,* 299-326.

Novak, M. A., & Harlow, H. F.(1975). Social recovery of monkeys isolated for the first year of life: I. Rehabilitation and therapy.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53-465.

Oliner, S. P., & Oliner, P. M.(1988). *The altruistic personality: Rescuers of Jews in Nazi Europe.* New York: Free Press.

Parks, M. R., & Floyd, K.(1996). Making friends in cyberspac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4.*

Perry, D. G., Bussey, K., & Freiberg, K.(1981). Impact of adults' appeals for sharing on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dispositions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2,* 127-138.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Rehberg, H. R., & Richman, C. L.(1989).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A look at the interaction of race, gender, and family compo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 385-401.

Rice, M. E., & Grusec, J. E.(1975). Saying and doing: Effects on observer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584-593.

Rosenhan, D. L.(1970). The natural socialization of altruistic autonomy. In J. Macaulay & L. Berkowitz (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pp. 251-268). New York: Academic Press.

Rushton, J. P.(1975). Generosity in children: immediate and long-term effects of modeling, preaching, and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59-466.

Smith, C. L., Gelfand, D. M., Hartmann, D. P., & Partlow, M. E. Y.(1979). Children's causal attributions regarding help giving. *Child Development, 50,* 203-210.

Solomon, D., Watson, M. S., Delucchi, K. L., Schaps, E., & Battistich, V.(1988). Enhanci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the classroo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 527-554.

Stanhope, L., Bell, R. Q., & Parker-Cohen, N. Y.(1987). Temperament and help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47-353.

Staub, E.(1978).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Social and personal influences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Staub, E.(1979).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Staub, E., & Sherk, L.(1970). Need for approval, children's sharing behavior, and reciprocity in sharing, *Child Development, 41,* 243-252.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ology.* New York: Norton.

Suomi, S. J., Harlow, H. F., & McKinney, W. T.(1972). Monkey psychiatris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 41-46.

Szynal-Brown, C., & Morgan, R. R.(1983). The effects of reward on tutor's behaviors in a cross-age tutoring contex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6,* 196-208.

Tapscott, D.(1998). *Growing up digital: Net generation.* McGraw-Hill. (허운나. 유영만(역)(1999).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Tietjen, A.M.(1985). Prosocial reasoning among children and adults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2,* 861-868.

White, G. M., & Burnam, M. A.(1975). Socially cued altruism: Effects of modeling, instructions, and age on public and private donations. *Child Development, 46,* 559-563.

Whiting, J. W. M., & Whiting, B. B.(1973). Altruistic and egoistic behavior in six cultures. In L. Nader & T. Maretzki (Eds.), *Cultural illness and healt*h (pp. 56-66). Washington, DC: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Yates, M., & Youniss, J.(1996).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community service in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5,* 85-111.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Zahn-Waxler, C., Cole, P. M., Welsh, J. D., & Fox, N. A.(1995).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with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27-48.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2000, Vol 13, No 3. 21-42

Prosocial Moral Development in Net Generation: Search for Related Variables and Feasible Strategies in Enhancing Prosocial Responding

Young 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social responding (intentional, voluntary behavior that benefits another) involves a variety of personal qualities including concern for other, perspective taking, empathy and emotional regulation. We examined characteristics of net generation(N-generation) who got familiar with cyber-space through computers from early.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such as anonymousness, discrete multiple identities in cyber-interactions, disinhibition of expression, we explored possible rel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to prosocial moral development: 1) Relations of thinking style in cyber-space to prosocial cognition, 2) Relations of emotional expressions in cyber-space to empathy as a prosocial emotion, 3) Relations of interaction patterns in cyber-space to personal concern for another in real life, 4) Relations of impulsivity in cyber-space to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 as a promoter in prosocial responding. Then, some feasible strategies that can enhance prosocial responding in socialization processes were suggested: 1) Parental emphasis on prosocial value in real life, 2) Giving a desirable prosocial model to children and adolescents, 3) Use of inductive messages to promote empathic responding, 4) Intrinsic reinforcement for prosocial behavior, 5) Practices in regulating expressions of negative emotion, and 6) Developing school-based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prosocial responding.